



박용철 강화군수, 기부문화 확산 '업체 교육 행정' 눈길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는 답례품이 답 시 최초로 '위기브' 계약으로 모금 창구 확대 나서

강화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지난 24일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 교육과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새롭게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와 인천시 최초로 계약을 맺고 모금 창구를 확대했다. '위기브'는 기존 '고향사랑e음'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답례품 홍보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다.

이번 신규 계약으로 강화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참여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군은 '위기브'와 협업하여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기법 지원, 온라인 홍보 전략, 유명인과의 협업, CS 지원 등 상시적인 답례품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기브'에 대한 소개와 시스템 이용법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답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답례품 공급업체 담당자는 "기부자의 수요와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 업

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의 자랑거리인 농·수·특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기부자가 만족할 만한 맞춤형 답례품을 발굴하고 정비하는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기부자 본인이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지정기부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교육 모습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다. /문미순 기자



남동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 위한 원탁토론회 모습

남동구 원탁토론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재인증 추진

구민 참여 토론회 의제, 6대 영역별 의견 교환

인천시 남동구는 아동, 아동보호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 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아동과 주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100여 명의 참석해 아동 친화 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아동 친화 6대 영역별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모듈별로 도출된 결과를 아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동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오늘의 토론이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및 아동정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 친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미순 기자

김정현 중구청장, 연두방문서 주민과 '소통'

인천 중구청은 김정현 중구청장이 2월 21일 개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에 동참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전했다.

한편, 연두 방문의 일환인 이번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에는 개항동 자생단체장, 관내 어르신 등 주민 150여 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정현 구청장은 주민들과 '공갈빵 깨기 이벤트'를 함께한 뒤, 2025년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여러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건의 내용은 차이나타운 진·출입로 조성, 월미도 내 주차



김정현 중구청장 연두방문 모습

장 조성, 공방 거리 조성 등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여기에 화답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김 중구청장은 지난 다수 건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진척 및 해결된 사항을 설명했고 관계부서와 현장 방문 등으로 민원을 면밀하

게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의 인사도 받았다.

끝으로 김 청장은 "주민들이 앞으로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라며 "언제나 주민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

인천시, '원도심 공원 확충'과 환경 개선 앞장

인천시는 24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원도심 공원 확대 및 공원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권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5년 시민행복 공원 조성'을 위한 시·군·구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군·구 공원 분야 관계자 25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공원 분야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 시

민행복 공원 조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사업으로 △생활권 원도심 공원 조성 확대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노후 공원 이용환경 개선 △맨발 산책로 및 편의시설 조성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원이용 환경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매를 걷은 적극 행정이라고 한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25년도 공원 분야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꾸준한 정책 개발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